

# “키다리 아저씨 역할로 내 삶도 치유받아”

주말극 '내 사랑 치유기' 중영... 배우 연정훈

‘빙의’와 촬영 겹쳐 정반대 인물 캐릭터 동시에 연기  
장모님 반응 좋아 ‘아직 멜로 해도 괜찮구나’ 느껴  
연기 20년... 핫한 배우보다 시청자에 인정받고 싶어

“따뜻한 인물을 내세우는 드라마가 요즘 잘 없잖아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최진유를 연기했다는 데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배우 연정훈(41)은 작년 10월부터 숨가쁘게 달려왔다. 최근 종영한 MBC TV 주말극 '내 사랑 치유기'에서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최진유를 연기한 데 이어 현재 방송 중인 OCN 수목극 '빙의'에서 이중생활을 즐기는 광기 어린 대기업 상무로 분한다.

12일 오전 강남구 논현동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내 사랑 치유기'에 출연하게 된 계기로 "최근 몇 년간 부드러운 캐릭터 주문이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결혼하기 전에 멜로 위주 작품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 남성적이고 강인한 연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에덴의 동쪽'이나 '제중원'은 그래서 선택한 작품이요. 그런데 그렇게 야망 있는 역할을 계속하다 보니까 멜로 장르를 예전처럼 많이 안 했더라고요. '내 사랑 치유기' 찍으면서 '아직 멜로 해도 괜찮구나' 하고 느꼈어요."(웃음)

'내 사랑 치유기' 촬영 기간은 사전제작 드라마 '빙의'와 겹치기도 했다. 연정훈은 정반대의 인물을 동시에 연기하면서 자신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극과 극의 캐릭터를 연기하며 심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착한 역할만 했을 땐 답답한 부분이 있고, 악역만 했을 땐 심적인 부담이 있죠. 180도 다른 두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연기한 게 제 삶에서 평온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치유기'였죠."

그는 주말드라마를 찍게 되니 배우자 한가인 어머니의 반응이 남달랐다고 전했다. "장모님이 우리 드라마는 옛날 드라마 보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셨다"면서 "김성용 PD도 옛날 드라마가 좋다고 했는데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정훈은 '내 사랑 치유기'로 작년 연말 MBC 연기대상 연속극 부문에서 남자 최우수연기상을 거머쥐었고, 수상소감에서 배우자 한가인의 둘째 임신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아내가 드라마 운동회에 커피차를 보내주기도 했다"며 웃었다.

"지금 8개월이예요. 걱정보단 기대가 많이 돼요. 그냥 건강하게 잘 태어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태교는 책 읽어주고 아빠 목소리 들려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첫째가 질투가 났는지 벌써 방해를 하네요."(웃음)

어느덧 연기 경력 20년이 된 그는 "그냥 연기를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어떤 캐릭터를 하고 싶다가보단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싶고 배우로서 성장을 해나가고 싶어요. 또 '핫한' 배우보다는 시청자들께 인정을 받고 그분들이 계속 보고 싶어하는 배우가 되고 싶고요. 나이 부담은 없고 어렸을 때보다 일이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어려운 신(scene)들이 주어지면 부담감이 컸던 반면 지금은 그걸 만들어나가는 재미가 더 커진 듯도 하고요. 그래도 역할 욕심을 내자면 아직 조폭 보스 역할을 못 해본 것 같네요."(웃음) /연합뉴스



# 정준영 사태 '일파만파'

해외 촬영 중단 귀국... 경찰,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수사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의혹이 인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이 해외 일정을 중단하고 경찰 수사에 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소속사 메이커스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엔 측은 "(미국에서 tvN '현지에서 먹힐까?'를 촬영 중인) 정준영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했다"며 "귀국하는 대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SBS '8 뉴스'는 빅뱅 멤버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연예인 중 1명이 정준영이라며 그가 다른 지인들과 카톡방에도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올려 약 10개월간 피해 여성이 1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찰은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레이블엔 측은 "정준영과 관련해 제기된 내용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준영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정준영과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6년에도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 김성은, '휴먼다큐 사랑+' 내레이션 재능기부

배우 김성은이 재능기부로 MBC드라마넷 '휴먼다큐 사랑+' 내레이션에 참여했다고 그의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가 12일 밝혔다.

오는 14일 방송할 '휴먼다큐 사랑+'에서는 친부모에게 버려진 뒤 정각장애를 가진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는 아이 소년의 사연이 소개된다.

두 아이 엄마이기도 한 김성은은 "소름이 저를 때릴 땐 운하와 동감이라, 대본을 볼 때부터 감정이 이입돼 가슴이 아팠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세 식구에게 제 내레이션 참여가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바른미래당 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봄이 오나 봄(재)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바른미래당 40 살맛 나는 오늘
11	4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왜그래 풍상씨(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내 친구 코리리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봄이 오나 봄(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50 다큐 공감(재)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MBC PICK X 호구의 연애(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도도 2 55 슬플 때 사랑한다(재)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페이스 벅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경성판타지(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디큐	00 원소집이 아내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비켜라 운명(재)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55 나의 독립 영웅(이수홍)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습터	00 왜그래 풍상씨	00 봄이 오나 봄	00 빅이슈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9:00 피피루 안전특공대
06:00 한국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15 꼬마하이로 슈퍼잭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00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50 특집 다큐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일본 땅의 우리 축제, 사천왕사왔소>
08:00 당동당 유치원1~2	14:30 냉장고 나라, 코코몽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미니특공대 X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랄랄라 뿌우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봄과 한 행 사이 3부 당신도 봄꿈을 꾸나오>
09:00 엄마 까투리	15: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1:50 EBS 다크프라이
09:30 몰랑	16:15 출동! 슈퍼원스	22:45 극한직업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6:30 랄랄라 뿌우(재)	23:55 EBS 초대석
10:30 한국기행(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24:45 지식채널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주꾸미 풋마늘볶음과 미나리초무침>	17:15 엄마 까투리	24:50 세계의 눈
	17:30 꼬마버스 타요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b>子</b> 36년생 형제를 좌우할만한 대국을 이룰 것이다. 48년생 기회를 제대로 잡는다면 위상을 제고시키기에 충분하다. 60년생 똑같은 현상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72년생 각각도로 검토해 보지 않으면 허점이 생긴다. 84년생 적나라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리라. <b>행운의 숫자</b> : 02, 28</p>	<p><b>午</b> 42년생 가는 곳마다 반기기 세상 살 맛 날 것이다. 54년생 전체적인 국면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하자. 66년생 기회가 보인다. 78년생 조바심을 버려야만 성사의 길목으로 들어선다. 90년생 실행 방법이나 기교에까지 신경 쓰는 것이 용이하다. <b>행운의 숫자</b> : 42, 31</p>
<p><b>丑</b> 37년생 분의 아닌 언행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49년생 주권을 갖고 소신껏 행하라. 61년생 다름과 개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양성이 요구된다. 73년생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85년생 차분하게 진행해야겠다. <b>행운의 숫자</b> : 05, 39</p>	<p><b>未</b> 43년생 알고 보면 굉장한 난제가 되리라. 55년생 낙수물도 반쪽 되면 땀을 흘리는 법이다. 67년생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선다. 79년생 먼발치 살피면 넘어질까봐 손질해야 할 부분이 눈에 띈 것이다. 91년생 서로 뜻이 맞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b>행운의 숫자</b> : 41, 86</p>
<p><b>寅</b> 38년생 도와주는 이가 있어서 겨우 체면을 유지 하리라. 50년생 손에 벗어난다면 불행은 자초 하리라. 62년생 당연시 해왔던 것에 한계가 보인다. 74년생 지나치다 보면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86년생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b>행운의 숫자</b> : 03, 49</p>	<p><b>申</b> 44년생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6년생 일들이 많아서 번거롭다. 68년생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0년생 방비하지 않으면 압박하여 혼란에 빠지면서 손실을 부른다. 92년생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 무난하게 처리 된다. <b>행운의 숫자</b> : 61, 54</p>
<p><b>卯</b> 39년생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51년생 의외의 인연이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63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만 하느니라. 75년생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낫다. 87년생 포장을 잘 한다면 가치를 높일 것이다. <b>행운의 숫자</b> : 97, 37</p>	<p><b>酉</b> 45년생 잡다함을 차치해야만 길조를 상승 시킨다. 57년생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뒤따라 없다. 69년생 전체적으로 힘든 국상이니 변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81년생 고귀함을 이루는 마당이 펼쳐질 수도 있다. 93년생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b>행운의 숫자</b> : 81, 70</p>
<p><b>辰</b> 40년생 귀중한 것이니 잘 간수해야겠다. 52년생 고통은 따르지만 득이 되는 일이나, 64년생 힘들어 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하여 잘 될 것이다. 76년생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수확할 준비를 하라. 88년생 조개 속에서 명주가 나는 이치이나. <b>행운의 숫자</b> : 71, 64</p>	<p><b>戌</b> 34년생 전문가와 상담해 보라. 46년생 상당한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58년생 일단 수용하고 보는 것이 이익이나, 70년생 공리를 잘 하셔서 대처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행하다. 82년생 깊이 있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b>행운의 숫자</b> : 14, 67</p>
<p><b>巳</b> 41년생 가까운 이와 인연이 깊사로 연결되겠다. 53년생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 볼 필요가 있다. 65년생 고강도의 조치만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77년생 외형상으로는 복잡해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89년생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b>행운의 숫자</b> : 17, 93</p>	<p><b>亥</b> 35년생 역경은 경험으로써 극복 될 수 있을 것이나, 47년생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59년생 상호간에 소통 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절실하다. 71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 83년생 불타오르는 기세이므로 잘 살펴야겠다. <b>행운의 숫자</b> : 80, 53</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